

금타 ‘5조 목표달성’ 차질 불가피…신공장 셈법 복잡

광주, 최대규모·고부가제품 주력
생산재개 수 개월 2분기 실적 비상
기아·GGM “생산 차질 당장 없어”
재전·빛그린 이전 중 득실 따질 듯

역대급 실적 질주중인 금호타이어가 최대 생산시설 광주공장 화재로 매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내 완성차 공장인 기아차 광주공장과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생산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빛그린산단 이전 사업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전남 불이 난 2공장(서쪽 공장)은 50~60%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공장 전체 면적은 14만 955㎡로 소실 면적은 지난 2023년 9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피해 규모(8만 7,000㎡)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 설립된 광주 공장은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 세 곳(광주·평택·곡성) 중 설립된 지 가장 오래됐다. 하루 3만 3,000개, 연간 1,200만본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데 금호타이어 국내 생산 능력(연 2,700만개)의 45%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설이다.

1공장 생산에는 문제가 없지만 2공장이 고부가가치 타이어를 제조·출하하는 주력 생산라인이라 피해는 더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장세를 달리던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불투명해졌다. 미국 관세 압박 등 영향으로 판매량 위축·수익성 감소가 예상된 상황에서 확보해 둔 재고를 활용하고 완성차 업체와 협조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생산 재개에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경쟁사에 거래를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4,110억 원) 및 당기순이익(1,718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도 매출이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조 2,062억원으로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을 보였다. 올해 세운 매출 목표는 약

5조 원이다.

당장 지역 완성차 업체인 기아와 GGM 생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GGM은 이날 ‘금호타이어 화재 영향성’ 분석 자료를 배포하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캐스퍼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재고 물량과 다양한 공급망 확보로 타이어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캐스퍼는 현재 정상 생산중인 곡성공장 제품을 장착, 전기차 전용 4,000본을 포함해 총 7,000본 재고를 보유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복수업체를 통해 타이어를 공급받고 있어 차 생산에 문제는 없다는게 광주시 설명이다.

금호타이어측은 화재 진압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주민 피해 보상 등에 최우선으로 집중·지원하고 화재 진압 후 확인 가능할 때 손실 규모 집계, 생산 재배치 검토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내고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진화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진화 이후 내부 진입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상황으로 진화 후 조속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화재 진화와 지역사회 안전이 최우선 목표로 회사는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협의가 지연된 노후 공장 이전 사업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전략 시장으로 떠오른 유럽 신공장, 빛그린 산단 이전 등을 놓고 고심중이었던 금호타이어가 화재로 소실된 공장 재건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전과 재건 중 득실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공장 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합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 내 토지 50만㎡(15만 1,250평)를 1,16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한 상태다.

홍승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관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광주조달청, 중기 판로확대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관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조달청에서는 김우환 청장과 이승렬 경영관리과장, 안선휘 자재구매과장, 허해성 장비구매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협동조합에서는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과 광주전남식자재협동조합 유동주 이사장,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김호두 이사장, 여수플랜트사업협동조합 최명환 이사장, 광주전남가구공업협동조합 김형준 이사장,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류승원 이사장, 전남남부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박정환 전무이사 등 7명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공공구매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회피금지 규정 정비 △조합 공동브랜드 제품 MAS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공공조달시장 참여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제도 개선 △MAS 계약단가 조정 시 협동조합 자료 활용 △조합추

천 수의계약제도 적극 확대 △부정당거래 제도 개선 △출입앨범 품목 MAS 활용 개선 등이 건의됐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은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구매 확대와 ‘공공조달 길잡이’,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 등을 통해 지역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중소기업은 판로가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하다. 요즘같은 불경기엔 공공판로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지역 대표 공예가 찾습니다”

‘공예품대전 광주시 예선’ 접수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대표 공예품을 발굴·장려하기 위한 ‘제5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광주광역시 예선’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지난 54회째

에는 광주지역에서 한국공예협동조합회장상,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지역 예선대회는 오는 6월 5일까지 △목·칠 △금속 △도자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분야 작품을 공모한다.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과 상품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 예정이며 총 25점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자격은 광주시 소재 증명이 가능한 공예사업

자, 개인 및 광주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예선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에 모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홈페이지(www.crafts.or.kr)에서, 현장접수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광주디자인진흥원 3층 전시장에 방문해 실물과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광주지역 예선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수상과 함께 개발장려금(시상금), 본선 참가 자격이 동시에 부여된다.

홍승현 기자

JCIA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8개사 선정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CIA)은 ‘2025년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8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 지역 콘텐츠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내 콘텐츠 개발·제작 기업 중 총 8개 과

제가 선정됐으며 지원 규모는 총 3억 9,500만원이다. 선정 기업들은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영상, 웹툰,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한다.

5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5일까지 콘텐츠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홍승현 기자

산인공 광주본부 ‘ESG 기반 품질교육’

기업 ESG·품질경쟁 강화 제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ESG 역량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기반 품질교육’을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

수원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며 품질관리 실무에 ESG 요소를 접목한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과정에서는 ESG 경영과 생산품질 혁신을 융합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제 제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공단의 ‘기업가치플러스 훈련’ 일환으로 운영되며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는 전액 정부 지원으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1:1 상담 기회도 마련된다.

윤옥균 산인공 광주본부장은 “품질 혁신과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다미정

광주광역시 선정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